

‘무적함대’ 한국도로공사, 12연승 도전

여자배구 10연승 1위 질주… 이번주 2승 추가 ‘조준’
남자부 대한항공 고공행진, KB손보·현대건설 추격

여자 프로배구 한국도로공사가 거침없는 질주로 구단 역사를 새로 쓸 준비를 마쳤다.

남자부에서는 선두 대한항공이 독주 체제를 굳히는 가운데 KB손해보험과 현대캐피탈이 그 뒤를 바짝 쫓으며 치열한 순위 싸움을 예고한다.

파죽의 10연승을 달린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주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할 경우, 구단 최다 연승 타이 기록인 12연승 고지를 밟게 된다.

여자부 단독 선두를 질주 중인 도로공사는 공수 균형이 완벽에 가깝다. 도로공사는 팀 득점(1032점), 공격 종합(41.64%), 오픈(36.2%), 이동 공격(62.07%), 서브 득점(세트당 1.205개), 블로킹 득점(세트당 2.523개), 리시브 효율(35.71%) 등 공수 대부분의 지표에서 1위를 달린다.

도로공사는 오는 3일 김천체육관에서 열리는 흥국생명과의 인천 원정 경기에서 11연승에 도전한다.

이 경기에서 승리해 기세를 올린다면, 7일 예정된 정관장과의 원정 경기에서 대망의 12연승을 바라본다.

도로공사의 역대 최다 연승 기록은 2021~2022시즌에 달성했던 12연승이다.

연승 행진을 저지해야 하는 상대 팀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순위 싸움이 치열한 중위권 팀들은 선두 도로공사를 잡고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어 매 경기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남자부에서는 대한항공의 고공비행이 계속된다. 탄탄한 선수층과 조직력을 앞세운 대한항공은 8연승 기도를 달리며 1위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 강력한 대항마인 KB손해보험과 전통의 명가 현대캐피탈이 맹주격한다.

대한항공은 9승 1패로 승점 25를 기록 중이며, KB손해보험은 7승 4패 승점 21. 현대캐피탈은 5승 5패, 승점 17로 추격의 고삐를 죄고 있다.

이번 주에는 상위권 판도를 뒤흔들 경기들이 기다린다.

대한항공은 4일에는 6위 우리카드, 7일에는 최하위 삼성화재와 맞붙어 비교적 수월한 한 주를 보낼 것이다. 6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리는 현대캐피탈과 KB손해보험의 경기는 전반기 순위 경쟁의 중요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데플림픽 배드민턴 金 박민경 ‘금의환향’

도장애인체육회 환영 행사



도쿄 데플림픽에서 활약한 박민경(왼쪽)과 김향.

확인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국제무대 경험을 쌓은 두 선수는 이달 19일부터 열리는 2026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김길리 “다음은 올림픽” 김길리(왼쪽)가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김길리는 1일(한국시간) 1일(한국시간) 네덜란드 도르드레흐트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4차 대회 여자 1500m에서 2분26초36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선수 폭행 논란’ 신태용 “그랬다면 감독 안해”

‘뺨 치기 사건’에 “정승현은 애제자… 표현이 과했다”

프로축구 K리그1 울산 HD 지휘봉을 잡은 지 두 달 만에 경질된 신태용 전 감독이 자신을 향한 선수 폭행 논란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신태용 감독은 1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하나원행 K리그 2025 대상 시상식에서 취재진 만나 “(울산 감독 시절) 폭행이 있았다면 감독 안 한다”고 관련 논란을 일축했다.

신 감독은 아들인 신재원(성남 FC)이 K리그2 베스트11 오른쪽 수비수 부문에 선정된 것을 축하하고 자 시상식장을 찾았다.

울산이 지난달 30일 열린 제주 SK와의 K리그1 38라운드 최종전에서 0-1로 지고도 9위로 1부 잔류를 확정한 뒤 울산 선수들은 신 감독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폭로했다.

정승현은 “(신 감독의 행동은)

요즘 시대와 좀 맞지 않고, 성폭력 이든 폭행이든 받은 사람 입장에서 그게 폭행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라면서 “나쁜 아니라 많은 선수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승현이 폭행을 당했다고 언급 한 사건은 신 감독이 울산에 부임 할 때 선수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발생했다. 정승현은 당시 신 감독이 본인의 뺨을 손바닥으로 쳤다고 주장했다.

신 감독은 이날 정승현의 폭행 주장에 대해 “예전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폭행은 없었다”면서 “만약에 폭행이나 폭언이 있었다면 난 감독을 안 한다”고 힘주 말했다.

그는 “정승현은 내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과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 동행한 애제자다. 내가 경질되기 직전 마지막에 미팅했던 선수가 정승현”이라면서 “왜 이런 인터뷰를 했는지에 대해선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아끼던 제자라 몇 년

만에 같은 팀에서 만나다 보니 표

현이 과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

한 뒤 “누가 첫 만남에서 폭행하겠

는가. 그 부분에 대해선 승현이가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하게 생각한

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리시아 ‘EAM MARIN’이 올해 처음으로 치러진 2025제주컵 국제요트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1일 제주도와 제주도요트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제주시 도두항 일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7개국 12개 팀 60여 명이 참가, 제주 앞바다를 누비는 박진감 넘치는 승부를 펼쳤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2012년 런던 올림픽 여자 요트 레이저 종목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중국 대표 쉬리자(Xu Lijia) 선수가 참석해 대회의 위상을 한층 더 높였다.

대회는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

는 퍼포먼스 요트인 중소형 킬보트 원디자인 J/70급 경기로 총 8개임을 진행했다.

경기결과 러시아의 ‘TEAM MARIN’이 1위, 2위는 대한민국의 ‘밸류테크’, 3위는 중국 ‘광저우 요트클럽’이 차지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개최식에선 제1회 제주컵 국제요트대회 흥보대사로 17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제주 출신 유튜버 ‘허밥’이 위촉됐다.

제주도와 제주도요트협회는 내년 대회에는 참가국과 관련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요트대회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위영석기자

송성문 “MLB 진출, 진전 아직”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진출을 노리는 송성문(기욤 히어로즈)의 행보는 최소 다음 주 이후 윤곽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

MLB 원터미팅은 매년 12월에 열리는 연례행사로, MLB 사무국, 빅리그 30개 구단과 마이너리그 구단, 예산전, 언론인, 여러 관계자들이 모여 다양한 현안을 논의한다.

진출과 관련된 질문에 “최근 미국은 명절(추수감사절) 기간이라 별 다른 움직임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원터미팅이 열려야 제안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송성문은 1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2025 커튼오프로 야구 리얼글러브 어워드(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시상식)에서 MLB

42년 경에 한 가지 결심을 해 보는 시간도 필요. 54년 매출이 증가되고 자영업에서 호조, 농업은 회복 된다. 66년 과다한 육식은 금물, 태산을 뿐 힘도 융도에 맞게 적절한 수위 조절이 필요. 78년 착실히 하나씩 해결하다보면 결과가 좋아진다. 90년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날, 과식은 금물.

43년 기쁜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근심도 다가온다. 55년 마음이 안정되고 의욕, 능률이 배로 증가하기도 한다. 67년 시비나 구설이 오니 다행지 않는 상황. 연극이나 풀풀놀이 장터에 가서 해소. 79년 계획 속에 한가지는 꼭 이루도록 한다. 9년 동료나 이웃과 음식을 함께 하거나 즐거움이 생긴다.

44년 차량업·부품업·수산업분야 물이 분주. 56년 어려움 가운데 회망이 보인다. 자녀일로 고민이 생긴다. 학창시절 68년 남 앞에 너무 나서면 주변의 시기, 마음을 되며 적이 되기도 한다. 80년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면서면 때론 주경아독도 필요하다. 92년 전진도 후퇴도 못하는 형국이니 신중함 필요.

45년 간섭을 상대는 친견이라 보니 시비조심. 57년 중책이나 책임을 다했을 때 주거나 내일을 해 보려고 몸이 바쁘다. 8년 장업 시 꼼꼼히 시장조사가 필요하고 업종 선별이 최우선. 93년 함께 외출하거나 죽하모임에 가게 된다.

46년 부탁을 들어줄 일이나 도움을 줄 일이나 생기니 함께 나눔을 가져라. 58년 한번 실패한 경우에는 중매나 소개가 생기기도 한다. 기다림에 대답이 있다. 70년 덕을 쌓는 지혜가 필요. 봉사할 일이 생긴다. 82년 직업 또는 이성교제가 생기기도 한다. 94년 모임에 초대되거나 음식을 함께 나눌 일이 생긴다.

47년 마음껏 활동을 하거나 의욕이 필요하다. 친목모임 악속이 진행된다. 59년 항상 회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족이 인정한다. 71년 벤디스런 마음을 버리고 분수를 지키면 좋은 답이 온다. 83년 새로운 만남이나 직업이 필요하다. 계획이 필요하다. 95년 내 주장보다 상대의 주장을 경청하는 것도 도움된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기극장 8:25 이침마당 9:30 KBS 뉴스 930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10 동행(제주)	6:05 걸어서 세계속으로 7:00 TV 유치원 7:30 국도망 대한민국(제) 8:50 생활정보 스페셜 9:30 일일드라마 천일한 리플리(제) 10:10 아일랜드타임 10:30 인간극장 스페셜 11:20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제)	6:00 MBC 뉴스튜디오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 전국시대 8:50 테이블 살인 여자(제)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헬로키즈 10:30 인간극장 스페셜 11:15 뽀뽀뽀 좋아좋아 스페셜 11:45 팬티하이어2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아침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J방 8:50 좋은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1:00 헤든카드 11:15 뽀뽀뽀 좋아좋아 스페셜 11:45 팬티하이어2	8:20 자구 영웅 번개맨 9:20 자이언트 팽TV 9:40 서장훈의 이우진 백민정자 12:10 귀신난 몸 13:00 EBS 평생학교 14:30 10시 두 번째 교과서 16:10 D彤동탕 18:30 블러스 입! 교실을 깨워라 19:50 꾸준작업
KCTV	12:00 SBS 12 뉴스 12:45 허트레이서 13:25 한글용사 아야야(제) 15:00 KBS 뉴스타임 15:15 월드(제) 15:45 캐리어 학교 기자(제) 16:00 TV 유치원(제) 16:30 어린이 동물리비(제) 17:00 라이즌2 17:15 그린운드크루 토토 17:30 스튜디오 K 스페셜	12:00 MBC 뉴스 12:25 오늘(제) 13:25 한글용사 아야야(제) 15:00 KBS 뉴스타임 15:15 월드(제) 15:45 캐리어 학교 기자(제) 16:00 TV 유치원(제) 16:30 어린이 동물리비(제) 17:00 라이즌2 17:15 JIBS 치네 뉴스 17:30 꾸러기 텁구생활(제)	9:00 KCTV 9시뉴스 9:30 도시재생 기획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2:30 광과 후 방송한 13:00 로컬여행 오정해보고 14:00 KCTV아이카드 키티션 15:20 방송콘텐츠경연대회 16:00 리얼퀴즈스타리 나는농부다 17:30 도시재생 기획 18:00 제주전국구어전 19:00 KCTV 종합뉴스	
제주CBS FM 93.3MHz 90.9MHz	7:2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12:00 CBS 뉴스	18:00 생방송 투데이 18:50 뉴스한국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우리들의 밸리드 1부 22:00 우리들의 밸리드 2부 23:10 특집 100분토론	14:05 이봉규의 어떤가요 17:05 시마에가 제주 17:30 자녀중등학부 18:00 한편부수 20:00 CBS 뉴스	
TBN제주교통 FM 105.5MHz 104.9MHz	7:00 출발! 제주대행진 9:00 스튜디오 1055 14:05 TBN 차차차 16:05 TBN 제주화려진 18:05 달리는 라디오	23:40 열린예술무대 위판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KBS 064)740-7331 / © MBC 064)740-2432 / © JIBS 064)740-7800 / © KCTV 064)741-7723 / © 제주CBS 064)748-7400 / © TBN제주교통방송 064)717-8114

오늘의 운세	2일

<tbl_r cells="2" ix="3" maxc